

# 소비절벽 넘을까... 29일부터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

## 광주전남 전통시장 15곳 동참 지역 유통업체도 준비 '박차'

지난해 시행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가 올해는 문화 축제 접목에 열린다. 특히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제조업체도 참여를 확대해 행사 규모를 키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 간 대규모 쇼핑관 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행사로, 내수 진작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와 유류, 제조, 관광,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업체가 협력한다.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구

특히 할인 기간에는 전국 백화점과 대형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특별할인 기간은 쇼핑 및 항공, 교통, 숙박,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 거리상권,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인이 소외되지 않고 이번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지원책도 마련된다.

광주전남지역 15개 전통시장도 동참한다. 지역 전통시장들은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표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 시장별 고유한 특색을 살려 관광·문화·공연과 연계해 지역 주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전통시장들은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은누리 상품권 경품 증정, 잠이 잠포벌 10~30% 할인, 경품 행사 등을 실시한다. 캄캄세일과 음식페스티벌, 체험 이벤트 등도 마련했다.

지역 유통업체들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위한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 등을 준비했다. 광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9층 행사장에서 코오롱스포츠·아웃도어 대전을 준비했다. 바이어 추천 패션 아이템을 선정,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코스메틱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홈수리방상품전과 슈즈&백 그랜드 페어 등도 열린다. 롯데백화

점 광주점은 행사기간 구매고객들에게 사은품과 상품권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와 광주지역 이마트들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 기획전과 다양한 이벤트, 체험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상식 양동시장 상인회장은 "잠기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하게 됐다"며 "정과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168개 업체(20일 기준, 매장수 4만8,000여 개)가 공식참여업체로 등록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 4개사, 금강제화 등 의류업체 12개사,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 11개사 등 제조업체 43개사, CJ푸드빌 등 서비스업체 9개사,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 116개사가 참여한다.

/황애란 기자

## "큰손 중화권 바이어 잡아라"

무협 광주전남본부, 내달 18일 수출상담회

중화권 큰손들이 다음달 광주를 찾는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중화권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상담회에는 광주지역 우수 중소기업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식품·생활가전 품목을 중심으로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60여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광주를 찾는 큰손들은 중국·인도·홍콩·베트남·필리핀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에서 소비재분야 전문업체 30여 곳이다.

이들의 주요 취급품목은 생활용품·가공식품·화장품·이미용품·쇼핑가전기기·가정용품 등이다.

'큰손'들의 면면이 눈에 띈다. 중국

에서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가전업체 TCL 가전그룹, 중국 전역에 비용실 프랜차이즈 500여개를 운영하는 상하이 웬펑 바이오팜도 광주를 찾는다.

청두지역 최대의 전자상거래 소비재 전문 기업인 유로온라인과 인도 3대 미디어그룹인 Network 18이 참가한다.

이밖에 홍콩 내 한국식품 전문 판매·유통 1위 업체인 KH FOOD COMPANY 등이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해외자부들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화장품과 식품, 디자인 소품 등이 인기가 있었다"며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거나 판로 확대를 계획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상담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062-943-9400)에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 중기 지원사업 공동 추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택)는 21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행과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한국산학협력동연구원(원장 정용기)과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60여명의 중소기업지원 기관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 소장의 '알과 고 이후, 상상력'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양 기관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경영정책 자문단 구성, 산학협동포럼, 중소기업 협력리더센터 세미나 등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개별적인 경영에 도움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1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행과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한국산학협력동연구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전력설비 아크방전 모니터링 광섬유센서 개발

광기술원 나노광전연구센터 노병섭·김명진박사팀

광섬유센서를 이용해 전력설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방전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한국광기술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광기술원 나노광전연구센터(센터장 노병섭)는 21일 전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인 ㈜지푸라워(대표 김영일)와 공동으로 지능형 전자장치(IED: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가운데 하나인 '전력설비 아크플래시 방전 모니터링 광섬유센서'를 개발했다.

광기술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광섬유센서 기술은 기존의 전기전자식 센서와 달리 전자기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의 광섬유센서 케이블을 이용,

고전압, 대전류 전력설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방전의 정확한 위치를 정밀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아크방전에 따른 화재와 기기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광섬유 표면을 HSD(High Surface Detection) 처리해 수광효율을 극대화한 이 기술을 전력설비 운용에 적용할 경우 최대 40m 구간에 대한 아크방전 감지와 10cm 위치분해 능력, 1msec 이내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

아크플래시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HSD 광섬유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수광회로 ▲신호를 읽고 처리해주는 계측기 ▲센싱 동작을 자가진단하는 스마트 광회로 등으로 구성된 광섬유센서는 전자제어시스템이나 지능형 운용소프트웨

어 등과 연동할 경우 고부가가치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크방전 모니터링을 위한 지능형 전자장치(IED)는 전량 수입에 의존,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광기술원 김명진 박사는 "절단 산업의 다양화와 대응량화에 따른 전력시스템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광섬유센서 기술은 송전과 변전, 배전설비는 물론 부하설비용 안전감시 및 차단제어시스템 등의 전력설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을 계기로 광기술원 나노광전 연구센터는 전력계통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광학센서들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 무역수지 10억9,700만 달러 '불황형 흑자'

광주세관 '2016년 8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 발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이 수출 감소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큰 이른바 '불황형 흑자' 때문이다.

21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6년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한 34억 9,000만 달러, 수입은 18.9% 감소한 23억 9,3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한 10억9,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수입이 23.7% 감소했으나, 수출은 10.2%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 기준으로는 108억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한 10억6,200만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억1,000만달러를, 무역수지는 5억5,2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타이어(20.7%)는 증가했으나, 자동차(15.7%)·기계류(15.6%)·가전제품(7.5%)·반도체(0.2%)는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65.4%)·철강재(9.0%)반도체(8.0%)·화학품(7.8%)기계류(6.5%)가 증가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0% 감소한 24억2,800만달러, 수입은 24.9% 감소한 18억8,3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4,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선박(16.4%)이 증가했지만, 기계류(86.6%)·석유제품(29.7%)·철강제품(0.4%)·화학품(0.1%)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47.3%)·석탄(2.4%)은 증가했고, 석유제품(41.1%)·원유(33.0%)·화학품(29.5%)은 감소했다.

/서미애 기자

##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설명회

26일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나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실감전시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홀로그래프 공연 ▲프로젝션 매핑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4가지 분야 지정과제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과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내 구축되어있는 장비들을 소개해 관련 기업인들이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역 관계없이 실감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기업과 컨소시엄 예정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사업설명회 참석 기업에게는 과제선정 평가가 지원이 주어진다.

이번 지원사업 과제선정은 오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된다. 진흥원은 사업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내에 상설전시해 일반인들이 실감미디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를 참조하거나 실감미디어팀(061-339-6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 방수

품질 · 경영 · 시스템인증

ISO 인증 9001  
KSA 인증 9001 · 2001인증

## 방수! 직접 시공하세요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적벽돌, 흙집, 드라이비트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무독성제품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미화표'를 꼭 확인 하세요!

###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 367-7755

시외지역택배우송함  
광주시 서구 농성동 660-29